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성취도 분석

전현선 · 임근옥¹ · 최용금¹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 ¹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ourses using MBTI personality type

Hyun-Sun Jeon · Keun-Ok Lim¹ · Yong-Keum Choi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ong-Keum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nmoon University, 70 Sunmoonro Tangjung-myeon, Asan-si, ungnam, 336-708, Korea, Tel : +82-41-530-2726, +82-01-8913-4401, E-mail : cherishgold@hanmail.net

Received: 4 April 2015; Revised: 15 June 2015; Accepted: 30 Jul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ademic achievement in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ourses using MBTI personality type. This study will provide the various pedagogical approaches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8 dental hygiene students in Chungnam from December, 2012 to March, 2014.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cademic achievement of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ourse and communication skills. After filling out the questionnaire, the students completed MBTI personality type sheet.

Results: The students were categorized as extroversion type (58.6%), sensing type (70.7%), feeling type (56.9%), and perceiving type (67.2%). In the academic achievement, extroversion and judging personality type students had higher self-efficacy than the students of introversion and perceiving types. The extroversion personality type students also had the higher assignment level and confidence than the introversion type.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learning capacity of the students, dental hygiene professors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achievement levels due to different personality types so that they can utilize better pedagogical approaches.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ourse, dental hygiene student, MBTI personality type

색인: 성격유형검사,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성취도, 치위생학과 학생

서론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술식가이자,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

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자이다¹⁾.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 중심의 업무만이 아닌 포괄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에 그 필요에 따라 임상치위생 교육이 과목 중심의 교육에서 포괄적인 과정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상치위생 관련 통합교육과정인 포괄치위생 교육과정은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²⁾. 포괄치위생관리의 틀이 되는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은 환자의 정보 사정, 치위생 진단 및 치위생처치 계획 수립,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진료 대상자 개인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구강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적 진단과 통합적 의사결정 능력, 임상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³⁾.

치위생학과 졸업 후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병원과 환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마주치게 될 사람들의 태도, 동기 및 행동을 탐구함에 있어서 의사소통론의 응용기법과 이론적 접근법은 중요하다⁴⁾.

의사소통에서 상호 이해하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는 자기이해이다. 자기이해란 자신의 지각, 감각, 정서, 인식, 사고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의 식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체적 자기, 객체로서의 타자(他者), 객체로서의 자기, 자기와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태도이다⁵⁾. 따라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인지하고 자기이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며,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을 예언하고 이해하기 위해 한 개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C. G. Jung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성격유형검사(MBTI)는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이라는 4개의 양극지표를 분류하고⁶⁾, 이 검사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유형 행동양식의 선호는 개인의 직업의 선택이나, 학업성취도, 인간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김과 정⁷⁾은 MBTI 성격유형과 직업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MBTI 4가지 선호지표에 따라 직업적 성격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외향-내향의 경우 사회형, 기업형, 예술형에서 외향이 더 높았고, 실제형에서는 내향이 높았다. 감각-직관의 경우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기업형 모두 직관형이 더 높았다. 또한, 박과 이⁸⁾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검사와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나온 직업성격유형과 MBTI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선호지표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직업성격유형 중 사회형은 외향성, 감정형과, 사업형은 외향성과, 사무형은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BTI 성격유형 검사는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 선택에 있어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자신의 선호선향과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 교육은 임상에서 주로 대상자 및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 등에 대한 실습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MBTI 성격유형 검사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변화를 유도하고⁹⁾, 학생들의 진로 및 취

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진로설계 시 도움을 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치위생학의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앞선 선행연구를 근거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 차이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업무인 포괄치위생관리를 교육함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학습의 수월성과 효과적인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포괄치위생관리 성취도 차이를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조사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보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학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충청남도 A시에 있는 S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중 2014년 02월에 졸업한 졸업생 28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총 58명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정보를 조사하였고,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미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지를 이용하여 성격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58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2.1.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가도구는 김과 박¹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 ASE)로 3개의 하위요인 즉, 과제수준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수준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5문항으로 문항 수는 총 25문항이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을 교육받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여 25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과제수

준선후에서 Cronbach $\alpha = 0.766$, 자기조절효능감은 Cronbach $\alpha = 0.804$, 자신감은 Cronbach $\alpha = .752$ 로 측정되었다.

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는 Navran(1967)가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PCI)를 개발하고 최¹¹⁾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중 15문항을 추출하여 의사소통 척도 12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척도 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646$ 로 측정되었다.

2.3. 성격검사

성격검사 도구는 1962년 Myers와 Briggs가 융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MBTI를 1990년 표준화 과정을 거쳐 완성한 한국판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으로⁶⁾ 한국 MBTI연구소에서 교육이수를 받은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검사를 수행하였다. MBTI의 지표 중 성격 선호지표는 외향(E)-내향(I)형, 감각(S)-직관(N)형, 사고(T)-감정(F)형, 판단(J)-인식(P)형으로 분류된다. 각 지표에 따라 16개 유형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으로 4가지 선호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PASW Statistics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성격유형의 분포,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t-test)으로 분석하였다.

성격유형에 따라 전체 포괄치위생관리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고,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선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이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년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58명의 연구대상자 모두가 여성이었고, 졸업생이 48.3%, 4학년이 51.7%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과 의사소통 수업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대상자가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을 교육받았으며, 포괄치위생관리과정 교육 시 의사소통 수업을 받은 대상자는 없었다. 임상실습 의사소통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는 100%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n the subjects

	Contents	N	(%)
Age	21	23	(39.7)
	22	27	(46.5)
	23	8	(13.8)
	Total	58	(100.0)
Sex	male	-	-
	female	58	(100.0)
	Total	58	(100.0)
Grade	graduate	28	(48.3)
	4 grade	30	(51.7)
	Total	58	(100.0)

Table 2. Students' perception on communication education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terms of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process courses

Contents		N	(%)
Did you receive a comprehensive education about hygiene management?	yes	58	(100.0)
	no	-	-
	total	58	(100.0)
Have you received a communication class for the patient in the curriculum?	yes	58	(100.0)
	no	-	-
	total	58	(100.0)
Do you think you need communication classes for clinical training to patient?	yes	58	(100.0)
	no	-	-
	total	58	(100.0)

Table 3. Subjects' academic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skills scores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process

Contents	Mean	SD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3.41	0.47
	Self-regulated efficacy	3.67	0.42
	Confidence	3.19	0.73
Communication skill	3.58	0.32	

2. 연구대상자들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 및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학과 학생 58명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성취도로 과제선호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경향은 <Table 3>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47이며 하위요인 중 자신감이 3.19로 나머지 하위요인 중 가장 낮았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이 3.67로 가장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은 3.58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

연구대상자들의 MBTI성격유형 분포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향형(41.4%)보다 외향형(58.6%)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형(29.3%)보다 감각형(70.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형(43.1%)보다 감정형(56.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단형(32.8%)보다 인식형(67.2%)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stribution of subjects' characteristic types

Characteristic	N	(%)
Introversion(I)/	24	(41.4)
Extraversion(E)	34	(58.6)
Sensing(S)/	41	(70.7)
iNtuition(N)	17	(29.3)
Thinking(T)/	25	(43.1)
Feeling(F)	33	(56.9)
Judging(J)/	19	(32.8)
Perceiving(P)	39	(67.2)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주요변인과의 관계

4.1. 성격유형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격유형에 따라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성취도로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격 선호지표인 내향형-외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 각각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은 종속변수, 성격 선호지표 각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성격 선호지표 중 외향-내향형, 판단-인식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즉, 외향형, 판단형이 내향형, 인식형에 비해 전체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반면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전체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외향-내향형의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가 Wilks' $\lambda = .86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 < 0.05$), 과제수준 선호와 자신감이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 < 0.05$). 자기조절 효능감은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93$). 반면 나머지 성격 선호지표인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은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6>).

4.2.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성격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통능력을 종속변수로 성격 선호지표인 내향-외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 각각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성격 선호지표 중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즉,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in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courses with respect to varying characteristic types

Characteristic	N	Mean	SD	p-value*
Introversion(I)	24	3.34	0.31	0.025
Extraversion(E)	34	3.56	0.40	
Sensing(S)	41	3.45	0.36	0.688
iNtuition(N)	17	3.50	0.42	
Thinking(T)	25	3.50	0.33	0.526
Feeling(F)	33	3.44	0.41	
Judging(J)	19	3.61	0.29	0.049
Perceiving(P)	39	3.40	0.40	

*by independent t-test

Table 6. Differences in sub-factors of self-efficacy in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courses with respect to varying characteristic type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ean	SD	F	df	p-value*
Task difficulty preference	Introversion(I)	3.25	0.38	4.750	1	0.034
	Extraversion(E)	3.51	0.50			
Self-regulated efficacy	Introversion(I)	3.63	0.40	0.290	1	0.593
	Extraversion(E)	3.69	0.44			
Confidence	Introversion(I)	2.92	0.62	6.221	1	0.016
	Extraversion(E)	3.38	0.75			
Wilks' $\lambda=0.866$, F = 2.789, p-value* = 0.049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nsing(S)	3.38	0.42	0.548	1	0.462
	iNtuition(N)	3.48	0.58			
Self-regulated efficacy	Sensing(S)	3.67	0.42	0.014	1	0.907
	iNtuition(N)	3.66	0.44			
Confidence	Sensing(S)	3.18	0.75	0.051	1	0.823
	iNtuition(N)	3.22	0.71			
Wilks' $\lambda=0.986$, F = 0.249, p-value* = 0.862						
Task difficulty preference	Thinking(T)	3.35	0.41	0.557	1	0.458
	Feeling(F)	3.46	0.52			
Self-regulated efficacy	Thinking(T)	3.75	0.36	1.731	1	0.194
	Feeling(F)	3.61	0.45			
Confidence	Thinking(T)	3.31	0.78	1.234	1	0.271
	Feeling(F)	3.10	0.69			
Wilks' $\lambda=0.899$, F = 2.025, p-value* = 0.121						
Task difficulty preference	Judging(J)	3.56	0.40	3.318	1	0.074
	Perceiving(P)	3.33	0.49			
Self-regulated efficacy	Judging(J)	3.85	0.34	5.833	1	0.019
	Perceiving(P)	3.58	0.43			
Confidence	Judging(J)	3.20	0.62	0.006	1	0.941
	Perceiving(P)	3.18	0.79			
Wilks' $\lambda=0.883$, F = 2.390, p-value* = 0.079						

*b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Table 7.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s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 types

Characteristic	N	Mean	SD	p-value
Introversion(I)	24	3.38	0.28	<0.001
Extraversion(E)	34	3.71	0.29	
Sensing(S)	41	3.59	0.32	0.675
iNtuition(N)	17	3.55	0.33	
Thinking(T)	25	3.62	0.36	0.340
Feeling(F)	33	3.54	0.29	
Judging(J)	19	3.60	0.32	0.752
Perceiving(P)	39	3.57	0.33	

*by independent t-test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성취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성격유형을 가진 치위생학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포괄치위생관리과정 교육 시 교수 학습전략 및 면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검사로 내향형(41.4%)보다 외향형(58.6%), 직관형(29.3%)보다 감각형(70.7%), 사고형(43.1%)보다 감정형(56.9%), 판단형(32.8%)보다 인식형(67.2%)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임12)의 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외향형이 63.1%, 감각형이 87.9%로 나타나, 내향형과 직관형 보다 높은 경향은 유사하나, 사고형 54.4%, 판단형이 59.4%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형과 인식형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한과 원¹³⁾의 연구에서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이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서는 확연하게 외향형과 감각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외향형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⁵⁾ 치위생학과 특성상 대다수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선호선향에 있어 뚜렷한 외향형 선호를 보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감각형의 경우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접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관찰 가능한 실제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파악하여 인식하는 직관적인 경향보다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대상자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학업적 성취도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보면 3.58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김¹⁴⁾의 연구에서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3.28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대상자를 보는 임상적인 수행능력의 교육과정이므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포괄치위생관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사소통능력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수행능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특히, 본 연구에서 외향형의 학생들 보다 내향형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 수준을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향형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교육 시 이들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괄치위생관리과정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하위 요인인 자심감은 3.19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자심감은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상자 관리 방법에 대한 자신의 확신 등을 포함하는데 여전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술기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 대상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자심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의 술기능력지도 및 학습체계가 필요하며, 더불어 외향형 보다 내향형 학생들의 자심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감안하여, 내향형 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확연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선호지표로는 외향형과 내향형이다. 외향형의 학생들이 내향형 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p<0.05$). 외향형의 특성상 관심을 외부 세계나 사람에 쏟고, 폭넓은 대안관계를 유지하며,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 자신의 새로운 환자나 대상자를 만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성향들이 반영되어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성격유형에 따른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외향형이 3.56점, 내향형이 3.34점으로 외향형이 높게 나타났고($p<0.05$), 판단형이 3.61점, 인식형이 3.40점으로 판단형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임¹²⁾은 성격유형에 따라 치위생과 학업적 성취도에서 외향형, 사고형이 내향형, 감정형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적 자아효능감수준이 높았고, 감각·직관형, 판단·인식형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위생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과정으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덜 느끼며, 실습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외향형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외향형이 내향형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근거중심의 사정, 판단, 수행, 계획, 평가의 순환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판단형이 포괄치위생관리과정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인식형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 등¹⁶⁾의 연구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성향과 환자중심적 태도를 분석한 결과 외향형이 내향형 보다 덜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및 관계를 중요히 생각하며, 환자 중심적 태도를 더 보였으며, 김 등¹⁷⁾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중 판단형의 학업 성취도가 인식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뽁뽁하게 짜인 보건의료 계열 학업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답답한 틀을 불편해 하는 인식형에 비해 빨리 결정을 내리고, 결정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판단형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수용하게 되므로, 자신의 학업계획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학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포괄치위생관리 과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과제수준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제수준선호와 자신감 부분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able 6>, 이 외의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서의 과제수준선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대상자 케이스를 접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한가?’ 또는 ‘비록 어렵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접해보지 못한 대상자를 접해보는 것이 즐겁다’ 등을 묻는 질문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선호정도를 말하며, 자신감은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정, 판단, 계획, 수행, 평가 등

으로 포괄치위생관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다. 이러한 질문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선호지표는 외향형과 내향형이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외향형의 특성상 외부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다양한 관계형성을 선호하며, 표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호선향이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서 자신의 대상자의 케이스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로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의지와 표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임상에서 필요한 지식, 술기, 태도 등을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임상현장에 나가기 전 전문가적인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본을 다지는 발판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이러한 포괄치위생관리 교육과정을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보다 잘 수용하고, 학습하면서,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전략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외향형과 감각형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들과 관련된 실습이나 친숙한 동영상 및 증례 문제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사고형 학생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론의 원리원칙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자신만의 치위생관리과정의 목표 및 과정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도한다면 좀 더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BTI 성격유형 검사는 학생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학습지도 및 교육적 전략, 진로, 학업에 대한 상담 등을 가이드 하는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MBTI 성격유형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격 선호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포괄치위생관리과정 교육을 위한 학생들 지도 및 상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소수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성적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설문으로만 구성된 평가들은 실제 학생들의 포괄치위생관리에 대한 임상적 학업 성취도나 객관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없었기에 실제 교수자의 임상술기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격유형과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유일한 연구로 그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포괄치위생관리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전략과 관심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법 적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연구와 MBTI 성격유형 파악을 통한 학습지도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BTI 검사를 진행하였고,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를 조사하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여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MBTI 검사로 나타난 성격유형 분포는 내향형이 41.4%, 외향형 58.6%, 직관형이 29.3%, 감각형이 70.7%였으며, 사고형은 43.1%, 감정형은 56.9% 판단형이 32.8%, 인식형 67.2%로 나타나, 각각 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의사소통 능력은 성격 선호지표 중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서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 중 외향-내향형, 판단-인식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0.05$), 외향형, 판단형이 내향형, 인식형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4. 내향형-외향형 성격 선호지표에서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 중 외향형, 판단형이 내향형, 인식형에 비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p<0.05$).

종합하여 보면,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대한 성취도는 성격유형 선호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외향형과 내향형, 판단형과 인식형에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내향형의 학생들이 외향형의 학생들 보다 포괄치위생관리과정에 있어 의사소통, 과제수준 선호, 자신감 등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로서의 포괄치위생관리과정은 매우 중요한 임상업무이며,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보다 잘 수용하고, 적응하며,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대한 학업성취도 차이를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과 다름을 고려하여 교수자는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한 교육적 접근방식의 학습지도 방식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Darby ML, Walsh MM.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3rd ed. Saunders: Missouri; 2010: 1-37.
2. Han SY, Kim NH, Yoo JA, Kim CS, Chung WG. Current status of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J Dent Hyg Sci 2009; 9(3): 271-8.
3. Cho YS, Lee SY. Developing an integrated curriculum for a clinical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5; 5(1): 33-8.
4. Park MS, Bae SM, Yoon MS, Jung JA, Han YK. Dental hygiene management. Seoul: BookSam; 2013: 10-125.
5. Kim JT, Sim HS, Jae SB.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MBTI. Seoul: Assesta; 2011: 10-530.
6. Kim JB, Sim HS. MBTI test interpretation book. Seoul: Assesta; 2007: 1-74.
7. Kim JS, Jung MJ.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ype and Holland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based on MBTI. J Korean Soc Womens Cult 1999; 6(1): 25-54.
8. Park JC, Lee JS.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and MBTI personality types[Master's thesis]. ChungNam: Univ. of ChungNam National, 2008.
9. Han HS, Jeonh SH. The effects of MBTI based self growth program on ego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7; 7(3): 355-64.
10. Kim AY, Park IY. Study on the development scal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its validation. Korean J Edu Res 2001; 39(1): 95-123.
11. Choi EY.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Master's thesis]. Busan: Univ. of Gosin, 2004.
12. Lim SR. Relation of personality prefer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test anxiety in selecti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0; 10(6): 1024-7.
13. Han HS, Won Y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MBTI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of a region Jeonlado and Gangneung. J Dent Hyg Sci 2007; 13(1): 25-30.
14.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3; 13(3): 304-13.
15. Lee YS, GU M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3; 14(6): 2749-5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16. Moon SW, Nam BW, Seo JS, Ryu EJ, Kwon HJ, Son IG.

Patient-centerednes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 2006; 18(1): 75-83. <http://dx.doi.org/10.3946/kjme.2006.18.1.77>.

17. Kim S, Kim JH, Hur YR.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 Med Edu 2005; 17(2): 107-19. <http://dx.doi.org/10.3946/kjme.2005.17.2.107>.